

리뷰-광주시립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주시립오페라단이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지난 25~26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선보였다. 1막 연회 장면에서 주역 알프레도와 비올레타가 이층창하는 장면(왼쪽), 병실로 무대가 바뀐 3막에서 두 사람이 오해를 풀고 노래하는 모습(오른쪽).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풍부한 성량·파리 재현한 무대 '흡족'

"la nascita di una stella! (스타의 탄생)"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지난 25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펼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새로운 프리마 돈나의 출현을 목도하는 시간이었다. 주역 비올레타 역을 유망 오페라 싱어가 아니라 신진 소프라노 김희정(코모 베르디 국립음악원)이 맡았다. 공연에 앞서 최철 예술감독은 "김 소프라노는 광주시립오페라단에서 행정 직원으로 일하던 중 '생애 마지막 오페라'에 도전하고 싶다"며 돌연 오디션에 지원했다"고 했다.

리릭컬한 가사와 전막에 걸친 초고음을 소화해 야 하기에 기대와 염려를 동시에 받았으나 성량, 연기력 양면에서 성공적인 무대였다는 평가다.

비올레타에 신예 김희정 소프라노 초고음·연기력, 성공 무대 평가
 바로크·신고전주의 무대미술 무대 의상파라 비극적 이야기 은유 기동·소품 등 극 분위기 고조시켜 다음달 1~2일 대구서 상연 예정

1988년 마리 맥로린 등이 주역을 맡은 버전이 정극이었다면, 미니멀한 구성에 미디어아트를 엮은 이번 공연은 현대극에 가까웠다. 타락한 여인(Traviata)의 통속적 연애담과 이탈리아 벨칸토 전통을 동시대성 위에 현현시켰다.

가족 반대로 시련을 겪는다는 전제는 로미오&줄리엣 콤플렉스와 접목한다. 이와 함께 올려 퍼진 '축배의 노래'와 사랑 고백 '행복하고 빛나는 어느 날', 사랑의 진심을 사유하는 '아! 그이인가' 등을 귀를 사로잡은 레퍼토리들이다.

비올레타는 알프레도(Ten.)와 감성전에 따라 1막 살롱에서 강렬한 레드 드레스를, 그의 아버지 제르몽(Bar.)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이 무르익은 2막(1장)에서 진녹색 로코코풍 의복을 입는다. 무채색 세트 위에서 옷의 색깔은 도드라졌다.

친구 플라라의 저택에서 가면무도회가 펼쳐진 2막(2장)에서 비올레타는 검은 의상으로 비극적 페이스를 은유한다. 알프레도(갈색·검은색), 플라라-안나(회색), 제르몽, 합창단(흰색·검은색)이 채도 없는 옷을 입은 것도 '색채 알레고리'에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파티 장면은 여러 대사가 뒤섞이며 인물들의 감정선, 극의 현 상황을 한 번에 보여준다. 출연진은 각기 다른 대사와 성부에 집중하면서 무규칙 속 질서를 찾아가듯 앙상블을 이뤘다.

1막 말미에 비올레타는 붉은 꽃밭 하나를 허공에 던진다. 아무도 받지 않는 부케, 흩뿌려진 꽃잎이 사랑의 비극을 암시한 이 장면은 돈다발이 흩날린 대목과 오버랩된다.

이어 광주시립발레단은 가스통 자작의 패거리가 돼 투우사 분장을 하고 '마드리드의 투우사'를 쳤다. 무용수의 소떼(도약)와 군무, 특정 대형을 이루는 포지셔닝은 플롯의 단조로움을 깨고 연회 분위기를 배가한 디베르티스망이다.

이 작품이 비극적 파토스 속에서 고결한 아가페로 나아간 '동력'은 베르디의 자전적 경험에 있다. 베르디는 알렉산드로 뒤마 피스 작 '동백 아가씨'를 각색해 '라 트라비아타'를 만들었다. 원작자인 뒤마 피스의 부친은 여성 편력이 심해 혼외자를

많이 두었고, 그중 하나가 뒤마라는 점에 역경을 딛고 이뤄내는 사랑의 송고함을 주제에 녹였다.

바로크, 신고전주의 양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당대 파리의 양식을 재현한 무대미술 또한 아름다움을 더했다. 기둥이나 소품의 좌우 배치, 전후방 깊이감의 활용은 극의 심리적 뉘앙스를 고조시키는 방법론이다.

중반부에서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사육제도 볼 수 있었다. 형형의 총천연색 물감이 창을 물들인 모습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노는 '라 토마타나'를 연상시킨다. 이 같은 화사한 눈대목이 사랑의 몰락을 모순 형용한다는 점은 내재적 비극과 맞닿아 있다.

비올레타와 그랑빌 의사 등은 풍부한 성량으로 성음을 전했다. 알프레도 음량이 다소 약해 오케스트라 피트를 뚫고 나오지 못한 점은 옥에 티. 대극장 객석 뒤편(최장 거리 32m)에서도 온전한 울림이 전달될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생명력을 잃고 백화(白化)한 꽃처럼 비올레타는 종막에서 순백 드레스를 걸친다. 짧은 생애 끝 낙화를 앞둔 한 딸기 동백꽃잎 같다.

이 대목은 여주인공이 곧 세상을 떠나고 사랑은 실패할 것임을 암시한다. 여주인공의 죽음을 앞두고 무대 질관을 복도로 연출, 시선을 병상으로 응결시킨 과감함도 인상적이다.

다만, 비올레타의 죽음은 극단적 비극이라기보다 '승화'에 가깝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설한 비극 이론 테레시스(theresis)와 같이, 비극이 고통을 매개로 주인공의 내면을 고양시켰기 때문, 한편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이 작품을 오는 11월 1~2일 달빛교류사업 일환으로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상연할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역 문화자원 '자산재' 활용 방안 모색

최치원 기념사업회 인문학 포럼...문화자원 발굴 필요성 등 강조



사)빛고를 고운 최치원 기념사업회가 지난 25일 광주향교 대강당에서 '제6차 고운 인문학 포럼'을 진행했다. <사)빛고를 고운 최치원 기념사업회 제공>

(사)빛고를 고운 최치원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제6차 고운(孤雲) 최치원 인문학 포럼'이 최근 광주향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인문학 포럼은 지역 문화자원인 '자산재'를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자산재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인문학 포럼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광주광역시와 후원했다.

인문학 포럼에서는 초당대 박해현 교수를 비롯해 광주시 문화원연합회 이태호 회장, 한중문화원 강원구 원장 등 전문가 3명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정진욱 국회의원실 강성곤 사무국장이 참석해 광주 남구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치원(857년~?)은 유교·불교·도교에 깊은 이해를 지녔던 신라 말기 대학자로 '한국 인문학의 시조'로 평가받는다. 광주 남구 양과동에는 최치원을 배향(配享)하는 자산재가 있다.

조선 영조 13년(1737년)에 세워진 자산재는 이후 1979년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됐다. 최영중 최치원 기념사업회 회장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 및 토론 성과를 정리해 기념관 건립과 광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자산재를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모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등산의 사계, 가무악 향연에 실리다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유네스코 무등산 연가' 다음달 3일 전통문화관

무등산 아름다움의 극치는 사계절의 멋에 배 있다. 천왕봉 신록과 가을 단풍나무길, 눈꽃 같은 상고대 설경은 시기별로 운치 있다. 다양한 자연 풍경은 한 폭 줄풍류로 수렴하거나 고아한 국악관련 악의 선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이사장 황승욱)가 '빛고를 대풍류-유네스코 무등산 연가'를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주상절리, 백마 능선 등을 중심으로 무등산 가치를 제고하는 가무악 레퍼토리다.

2018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무등산은 올해로 지정 6주년을 맞았다. 내년 3차 재인증을 앞두고 무등의 지질학적 가치를 가야금 병창, 장작 판소리에 담는다.

공연은 무등의 봄을 생동감 있게 풀어낸 가야금 병창 '봄이 오면'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지는 '1.5도 지구의 위기'는 판소리와 25현 가야금으로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를 노래한다.

무등산의 여름은 가야금 병창 '고고전편',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합주'에 실린다. 가연하비 가야

금 연주단이 출연할 예정.

가을은 김덕속 무용단이 '수건춤'으로 묘사한다. 섬세한 발디딤과 흥 넘치는 춤사위에 기방 남녀의 한과 흥이 깃들여 있다.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쓰는 대목'은 목포 출신의 소리꾼 윤진철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을 역임한 박시양의 장단으로 올려 퍼진다.

끝으로 무등의 겨울은 반가연, 김하영 등의 25현 '팔도민요'로 재현된다. 한강수타령부터 몽금포타령, 밀양아리랑 등 다양한 곡들에 각 지역 아름다움과 정서가 투영된다.

이외 남도민요 중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등 흥겨운 남도 민요들도 무대에 오른다. 연주에 금의소리연주단.

한국전통문화연구회 황승욱 이사장은 "단풍이 물드는 가을을 맞아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전통 예술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